조계종, 전법·포교에 안정적 재정 확보 추진

11월 26일 '주요 성과·종책 계획 보고회'

'재정확보 사업 TFT' 등 논의
제37대 집행부 3년 성과 공유
총무원 일원화·선명상 세계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도 앞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이 시대 변화에 맞춘 전법·포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6일 서울 센트럴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7대 집행부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새로운 재정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 차·팀장급 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종단도 시스템 조정, 종단 불사 등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오늘 그런 좋은 방향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단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포교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종단이 직접 주관하는 재정 확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종단 재정 확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재정확보 사업 TFT' 구성 등 재정 확보 추진 체계와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계획 논의에 앞서 조계종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3년간 추진한 주요 종책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총평을 통해 올해 종단이 추진한 핵심 성과들을 공유했다.

묘장 스님은 종단의 가장 큰 변화로 '종헌'과 '총무원법' 개정을 통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을 총무원 단일 체계로 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천년을 세우다' 사업의 일환으로 선명상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국제선명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계획 보고회'에서 종단의 새로운 재정 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보존에서도 여러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 종단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전통사찰 보존법, 농지법 시행령 개정 등 국가법령 개정에 기여했으며, 사찰 경내지 주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통사찰 건축물 조사 결과에 따라 미양성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와 사찰림연구소 관련 종령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찰림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포교 분야에서는 미래세대·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법회를 지원했으며 불교박람회 등 행사에서 출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권역별 신규 출가학교 개설을 지원해 출가 가치 확산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국내외 재해 구호 △자비 나눔 등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 참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왔다.

묘장 스님은 "2025년 남은 한 달 동안,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불교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통사찰 가치 반영한 자연공원법 개정 필요"

조계종,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개정 공감 국회의원 35명 공동주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통사찰이 단순 종교시설을 넘어 역사·문화·생태·경관이 결합된 복합적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35명 공동주최로 열렸다.

문화유산과 자연보호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편, 현행 자연공원법이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집중 제기됐다.

기조발제에서 이영경 동국대 명예교수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역사적 위상과 공공적 가치를 설명하며 '공존' 개념의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의 '보존=인간배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통사찰이 자연의 피보존 객체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온 문화생태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 제도 안에서 사찰이 수행하는 생태적·문화적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체계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찰지 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7.4%를 차지한다. 행정적으로 부적합한 관리 카테고리에 적용되면서 전통사찰의 종교가치 저하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Ⅱ 중심에서 경관보전·공존형인 카테고리Ⅴ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언했다.

조계종은 향후 국회와 협력해 자연공원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여 대종사

조계종 포교부, 11월 26일 발표
12월 11일 15시 조계사서 시상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사진〉가 선정됐다.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11월 26일 올해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종정상 수상자인 정여 스님은 부산 불교계의 선구자로 꼽힌다. 부산 최초로 불교계 사회복지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법인을 설립, 개금사회복지관장 소임을 시작으로 부산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계층 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및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설립했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주도에 기여했다. 또 종교 간 연대 활동을 통해 공동선 실천과 화합에 기여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전 육군본부참모 차장)이 받는다. 법해 스님은 국빈 및 종단 주요 행사 봉행을 통해 불교 위상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유치에 기여했고, 어린이·청소년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군불교 도량 불사 및 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군불교 신행단체 운영 및 조직 안정화에 힘쓴 점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총무원장상인 원력상은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 박옥순 해외특별교구 사무팀장, 최미선 사단법인 동련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임은호 기자

"만해 잉태한 홍성불교, 내포로 확장·연구"

11월 27일 홍성서 학술세미나
종평위·수덕사, 홍성불교 고찰



홍성불교를 고찰하고 홍주읍성 일대의 불교사를 복원하기 위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7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불교와 한용운' 주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홍주읍성 발굴·정비 과정에서 다수의 사찰 부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홍주읍성 일대의 불교사를 복원하고, 홍성 지역 불교문화의 위상을 한 층 높이는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 지역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출생지이자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데 주목해 스님의 유산과 정신을 기리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성에서의 만해 스님' 주제 발제에서 스님의 출생과 유년 시절을 살핀 후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의 출발점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홍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는 '홍성불교의 위상과 연구과제' 발제에서 "홍주읍성에서 발견된 사찰 부재 일부를 읍성 안쪽에 모아 놓은 상태"라며 "이는 백제 이후 지역민의 신앙이 투영된 전통 유산인 만큼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와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홍성 불교사는 홍성이라는 행정구역 너머, 내포불교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제22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
전영숙
민족사

올해의 불서10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정원예찬
현진
담앤북스



유식이십론
강형철 외
씨아이알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한지연
동국대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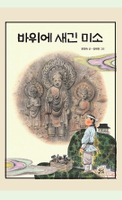


붓다의 수첩 – 담마
성찬
수류산방

입선



거룩한 불편
유정길
모과나무



바위에 새긴 미소
문영숙 글
김태현 그림
현암주니어



일단 앉아볼까요
페마 초드론 저
이혜진 옮김
한문화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저
김민정 옮김
운주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